


인쇄업 최고령 사업자 황남인쇄소 이성국사장

인쇄현장 준비는 전분이

90세를 넘긴 나이에도 인쇄인이라는 외길 인생을 굳건히 지켜오고 있는 이성국(91세) 사장(황남인쇄소). 그는 2000여개 사에 이르는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회원사 가운데 최고령 사업주다. 1·4후퇴 때 남하한 이후 1959년에 자리를 잡은 용산에서 지금의 사업체인 황남인쇄소를 운영해 오고 있다. 황해도 남천이 고향인 그는 상호를 황남으로 지을 만큼 고향에 대한 애착심이 대단하며 꾸준한 자기 관리를 통해 60~70대로 착각할 정도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60년이 넘게 인쇄업에 몸담고 계시는데.


 별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시간이 그렇게 흘렀을 뿐입니다. 굳이 의미 부여를 하자면 제가 가진 능력의 중심에 인쇄가 있었고 제가 해야 할 일이 인쇄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고마운 것은 제가 팔방미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인쇄밖에 몰랐다는 뜻입니다. 또 누군가 해야 할 일을 제가 해 온 것뿐입니다.

지금도 제 곁에는 활자 인쇄기 두대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작동이 잘됩니다. 저와 반세기를 함께 해 왔지요.

‘60년이 넘는’이라는 표현은 너무 거창하기 때문에 조금 쑥스럽습니다. 단지 제 고향에서 해 왔던 일을 이어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고향을 떠나면서 참으로 힘든 시간들이 많았어요. 자신의 고향을 잃었다는 것은 언제든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도 있지만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 마음속에 지키고픈, 고향을 품고 싶었던 무엇인가를 이어 가고 싶었던 것이겠지요. 인쇄소 명칭을 황남

으로 한 것도 마음 한 구석에 존재하는 고향을 바라보는 입장이 아니라 피부로 느끼고 싶어서입니다.

인쇄업을 시작하게 된 것은 언제부터였습니까.


 제 고향은 황해도 남천입니다. 19세에 결혼을 했어요. 1940년인 20대 중반에 남천에 있는 조광인쇄소에 입사해서 활자를 만지는 인쇄와의 인연이 시작되었지요.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 당시는 인쇄업이 희소가치가 있는 업종이었고 우수한 기록문화를 가진 민족이라는 자부심 때문에 대우가 좋을 때였습니다. 남하는 6·25 전쟁 당시 흔히들 말하는 1·4후퇴 때였습니다. 당시 아내와 남매를 데리고 부산으로 가게 됐습니다.

사회·문화·경제·정치 등 무엇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었던 세월이었어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만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고향에서 배웠던 인쇄기술을 부산에서 다시 시작하면서 3년을 보내게 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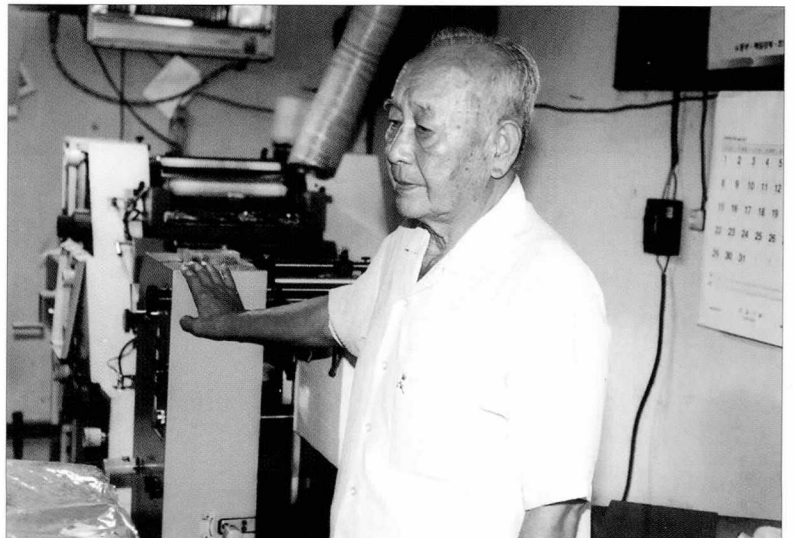
91세라고?

아는 분들이 없던 시기라서 그때만큼 고생했던 기억도 없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당시 인쇄업에 대한 자신감과 사명감이 누구보다 앞서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줄곧 해왔던 일이기도 하지만 미래를 위해 한번쯤은 투자해 볼만한 가치있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태평양(주)의 창업주인 서성환 회장님이 황해도 평산 출신이라 우연치 않은 기회에 도움을 얻게 됐죠. 지금 운영하고 있는 황남인쇄소를 세우는 데도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현재 사업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황남인쇄소는 1959년도부터 여러 지인들의 도움으로 설립됐습니다. 지금도 첫 거래의 물꼬를 튼 태평양(주)이 주 거래처입니다. 그 당시의 믿음이 현재까지 이어져 온 것이죠. 우리의 거래에는 항상 믿음이 따라 다닙니다. 오래된 장맛의 비결이라고 할까요.

제가 힘이 들 때 많은 도움을 얻었기에 그 인연이 또 다른 인연을 낳고 흔히들 말하는 '상생'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도 꾸준한 거래를 통해 신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비결은 물량보다는 철저한 관리에 의한 품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수의계약에 의한 운영도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일에 맞는 확실한 납품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자신도 항상 직원들에게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직원 6명이 누구 한명을 중심으로 운영되기보다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내실있는 경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거래처를 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운영은 아들(국표)이 하고 있어요. 아내와 사별한 후 아들은 든든한 제 동반자이자 사업 파트너가 됐습니다.

제가 결혼을 조금 이른 19세에 하는 바람에 아들도 벌써 70세가 됐습니다. 항상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제 곁에 묵묵히 남아 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장은 동시에 제가 기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일터와 가정이 동시에 존재하는 곳이라고나 할까요. 덕분에 '사업이냐', '가정이냐' 라는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전 직원이 이제는 가족입니다. 저에게 있어 인쇄업은 제 인생의 모든 것이지요.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크 나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별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100수까지 일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제 여력이 되는 한 인쇄업을 놓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기술과 운영 능력을 조금씩 직원들에게 전수해 줄 계획입니다. 저의 실제 나이는 호적과 달리 87세입니다. 일선에서 물러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물러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북이 고향인 분들 중에 일선에 계신 분들은 거의 없지만 제가 지금까지 인쇄업을 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진심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사업이라는 것도 일종의 사람이 하는 일인데 어떤 사심이나 조건이 들어간다면 이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

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있는 그대로 대하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된다면 언젠가는 자신이 했던 만큼 그대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비해 인쇄 기술이 많이 변했지요.

 격세지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말 그대로지요. 인쇄 기자재를 비롯해 인력 운영 형태나 공급 물량 등 수많은 것들이 변했지요. 더군다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컴퓨터와 첨단 IT방식이 옛날과 비교해서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빨라졌습니다. 서울에서 자리를 잡은 이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든 일을 일일이 손으로 했습니다. 인력을 구한다는 자체도 무척 어려움이 많았던 시절이었지요. 또 인쇄업이라는 자체가 생소할 때라 이북에서 처음 인쇄업을 접했을 때보다 환경이나 기술의 차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활판기 3대를 운영하면서 조판 작업을 직접 해 봤지만 속도나 소모품 등 경제적인 면에서 지금의 작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아직도 인쇄를 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일궈온 분들이 많다는 것은 그때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특히 옛 우리 조상들이 그토록 심혈을 기울인 인쇄를 평생 업으로 살아가고 가업으로 물려주는 것을 볼 때 흐뭇한 마음이 들곤 합니다. 그만큼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품고 있는 업종입니다.

건강 유지는 평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30년 동안 요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환갑이 넘어서 배웠는데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등산을 비롯해 다른 취미 생활도 해 봤는데 이만한 건강 유지 비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처음 배울 땐 활성화가 되지는 않았던 시기였지요.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신체에 크게 무리만 가지 않는다면 그만한 생체리듬을 유지해 주는 운동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때 산행을 좋아할 때는 전국 방방곡곡 안다녀 본 곳이 없을 정도였어요. 요가는 정신적으로도 많은 수양이 됩니다.

선조들의 장인정신”

하지만 그것보다도 규칙적인 생활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제 때 꼬박꼬박 식사하는 것만큼 좋은 운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으 뜸이 될 수 있다고 봐요. 분수에 맞지 않는 욕심을 부리고 사는 것만큼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조금 비우고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것에 만족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쇄업에 종사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지요.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금속, 목판 활자 등을 비롯해 서양보다 월등히 앞선 인쇄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조상들이 이런 역사적인 발자취를 볼 때마다 인쇄업에 평생 종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적이거나 공적인 모임에 많이 참석을 못하고 있지만 자신이 서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사회가 변하고 생활 습관이 달라져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자신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속한 위치에서 역할에 충실할 때 언젠가는 보람된 업종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외국 인쇄 기자재가 들어와 생산성이 향상된다고 해도 변치 않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정신적인 무장입니다.

세월이 변해도 이어 나가야 할 것은 우수한 기록문화를 전수하는 인쇄의 고유기능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아름답다' 라는 말은 '나름답다' 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 받아 자신의 위치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에 충실할 때 가장 아름다운 인쇄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쇄업은 소위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문화를 계승하고 전달하는 자긍심이 돈보다 앞서야 한다고 봐요.

〈대담 유창준 국장·사진 장홍일 기자〉



“세월이 변해도 이어 나가야 할 것은 우수한 기록문화를 전수하는 인쇄의 고유 기능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아름답다' 라는 말은 '나름답다' 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 받아 자신의 위치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에 충실할 때 가장 아름다운 인쇄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